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등 대외 부문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9% 양의 성장률을 기록함
 - 본고는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성장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회복 여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검토해보고자 함
- 2023년 1/4분기 가계소비는 팬데믹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의 정상화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회복 여력은 상당히 소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을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소비심리가 정상적일 때 소비 회복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였음
 - 2022년 1/4분기의 경우 2017~2019년 1/4분기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평균소비성향의 차이가 3.0%p에 달했기 때문에 소비 회복 여력이 상당히 컸음
 - 반면, 2/4, 3/4, 4/4분기에는 그 차이가 각각 1.2%p, 0.9%p, 1.1%p로 감소하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 여력은 있으나 그 정도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에 기반한 분석에서도 상기의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며, 특히 2023년 1/4분기의 소비 증가는 중산층 이상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평균소비성향과 2022년의 평균소비성향을 분기별로 비교하면, 2023년 1/4분기의 소비 회복 여력이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 5분위별 변화를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 5분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평균소비성향을 거의 회복하면서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1/4분기의 소비 회복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면이 크며, 향후에도 이러한 상승 여력은 존재할 것이나 그 정도는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투자 등의 회복이 필수적이며, 소비 회복의 지속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계소비심리의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보임



1. 최근 성장 둔화와 소비 증가

○ 최근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등 대외 부문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9% 양의 성장률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은 2022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수입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GDP의 성장 여건은 크게 위축된 상태임
- 반면, 가계소비와 설비투자 등 대내 부문의 성장세가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GDP에서의 비중이 절반 수준(2023년 1/4분기 47.6%)에 이르고 있는 가계소비는 성장 둔화를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 우리나라 가계소비는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2021년 4/4분기부터 2023년 1/4분기까지 6분기 연속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 2023년 1/4분기 가계소비 지출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2.6%로 가정할 경우, GDP 성장률이 0%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계소비의 4.6% 성장은 GDP가 양의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주요 국민계정지표 성장률(실질 기준)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본고는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성장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회복 여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함

-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최근 가계소비의 증가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이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어떻게 변화했으며, 소득분위 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소비 회복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거시적 기준과 미시적인 소득계층별 기준으로 모두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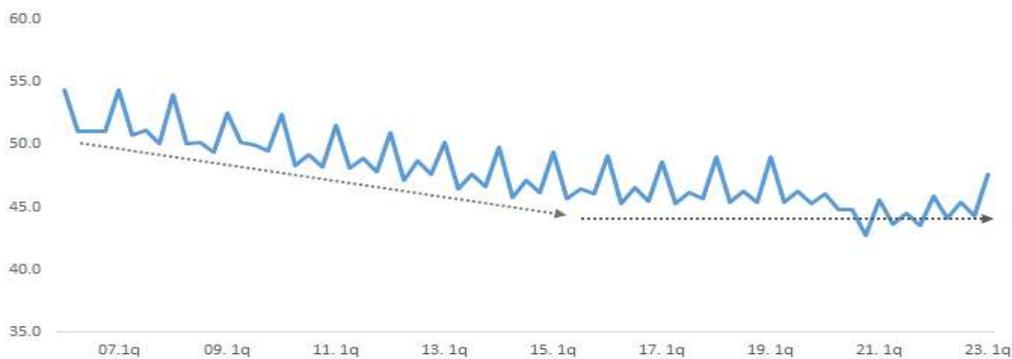
2. 국민계정의 가계소비

○ GDP 대비 가계소비의 비중을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 수준¹⁾과 비교함으로써 소비 회복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함(그림 2) 참조)

-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GDP에서 가계소비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에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GDP를 소득의 대리변수로 볼 때, 우리나라 소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소득 대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본고는 소비심리가 정상적일 때 GDP 대비 가계소비가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최근 수준과 비교하고자 함

〈그림 2〉 GDP 대비 가계소비 추이(실질 기준)

(단위: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 추이를 볼 때, 2023년 1/4분기 가계소비는 팬데믹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의 정상화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회복 여력은 상당히 소진된 것으로 보임(그림 3) 참조)

- 2022년 1/4분기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45.9%로 2017~2019년 1/4분기 평균(48.9%)과 비교할 때 3.0%p나 낮았기 때문에 2023년 1/4분기에 상승할 여지가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됨
 - 반면, 2023년 1/4분기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47.6%까지 상승하면서 2017~2019년 평균과의 차이는 1.3%p로 축소되었음
 - 이는 팬데믹 이후의 소비심리 정상화에 따른 추가적인 가계소비 증가 여력이 크게 둔화되었음을 의미함
- 2022년 2/4, 3/4, 4/4분기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2017~2019년 동분기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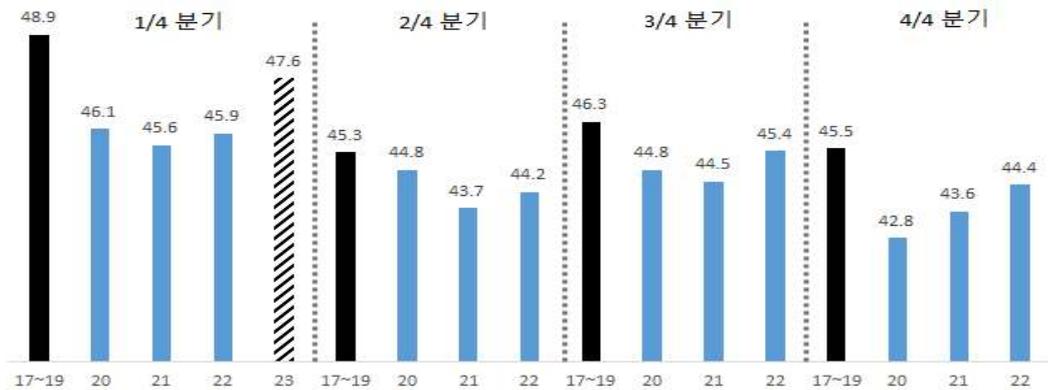
1) 예를 들어 1/4분기의 경우 2017년 1/4분기, 2018년 1/4분기, 2019년 1/4분기의 평균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기별로 3개년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음

(2/4분기), 0.9%p(3/4분기), 1.1%p(4/4분기)로 1%p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23년 2/4분기 이후에도 소비심리 정상화에 따른 소비 증가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동년도 1/4분기에 나타난 수준의 가계소비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2/4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비 증가 여력은 2023년 1/4분기에 비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림 3〉 분기별 GDP 대비 가계소비 추이

(단위: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3.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 본장은 「가계동향조사」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²⁾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전장의 GDP 대비 가계소비의 경우와 유사한 논의를 하고자 함(〈그림 4〉 참조)

- 「가계동향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추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5·2016·2019년의 경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³⁾을 보임
 - 따라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평균소비성향을 소비심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가정⁴⁾하고자 함
 -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조사체계 변경 등에 따라 공식적인 평균소비성향을 산출할 수가 없어 2017~2019년 평균치보다는 2019년 수치를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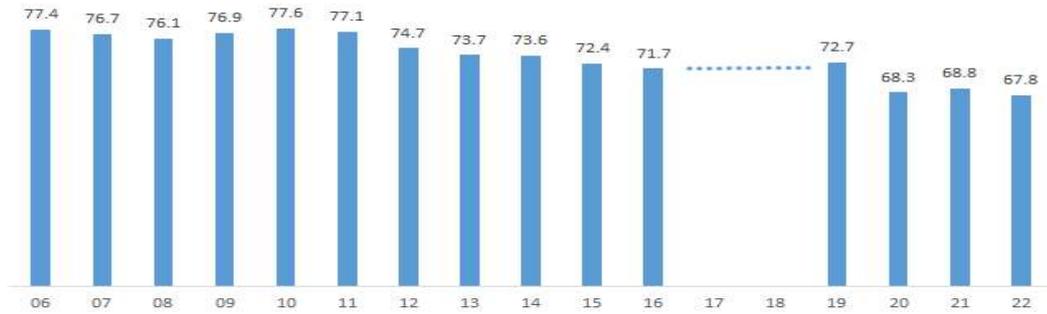
2) 물론 2015년, 2016년과 2019년은 조사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3개년도가 유사하다는 것이 갖는 의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밝혀두고자 함

3) 「가계동향조사」는 잦은 조사체계 변경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 이후임.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의 장기 추이보다는 코로나19 이전의 값이 2019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소비심리가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하여도 무방함

4) 「가계동향조사」는 잦은 조사체계 변경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 이후임.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의 장기 추이보다는 코로나19 이전의 값이 2019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소비심리가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하여도 무방함

〈그림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추이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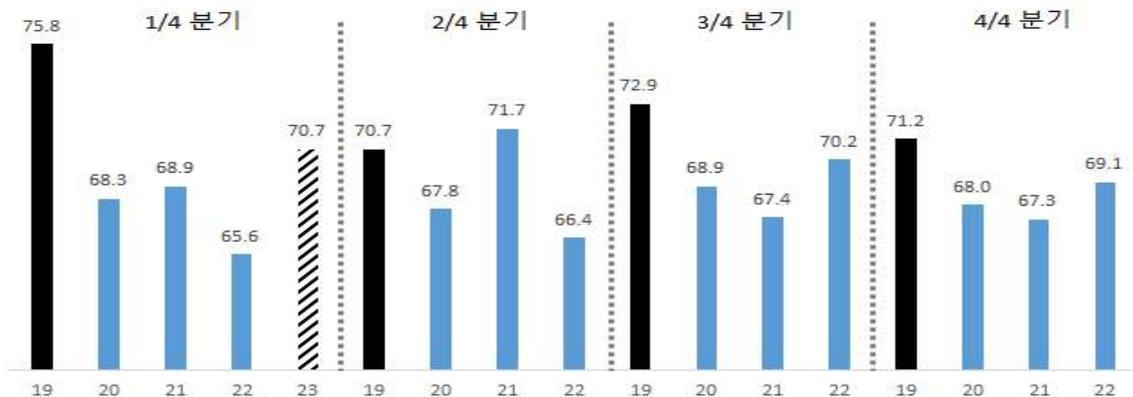
주: 2019~2022년 평균소비성향은 분기 값의 단순평균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팬데믹 이후 소비심리 정상화의 영향으로 2023년 1/4분기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갈수록 약해질 것으로 판단됨(〈그림 5〉 참조)

- 2023년 1/4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를 기록했음에도 6.4%나 증가하면서 평균소비성향도 2022년 1/4분기 65.6%에서 70.7%로 크게 상승함
- 이러한 큰 폭 상승은 2023년 1/4분기의 소비 증가 여력이 매우 컸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승 여력은 다른 분기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2022년 1/4분기와 2019년 1/4분기의 평균소비성향 차이는 10.2%에 달했으나, 2023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동기 대비 5.1%나 상승하였음.
 - 2/4~4/4분기의 2022년과 2019년 평균소비성향의 분기별 차이를 산출해보면 2/4분기 4.3%p, 3/4분기 2.7%p, 4/4분기 2.1%p로 나타나 1/4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비심리 정상화에 따른 소비 증가 여력은 2023년 2/4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1/4분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분기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비중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23년 1/4분기에 나타난 평균소비성향의 상승은 중산층 이상인 4, 5분위가 주도하였으며, 소비심리가 정상화된 정도도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양호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 소득 5분위별 2023년 1/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평균소비성향의 증가분을 파악해보면, 일시적인 변동 상황⁵⁾이 발생한 1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의 상승 폭도 크게 나타났음
 - 4, 5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6.4%p 상승했으나, 2, 3분위의 경우는 거의 상승하지 못하여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23년 1/4분기의 평균소비성향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분기와 소득분위별로 비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심리의 정상화 정도가 양호했으며, 3분위 이하는 코로나19 기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
 -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2.0%p 밖에 차이하지 않지만, 1분위는 12.7%p, 2분위는 13.9%p나 차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향후 저소득계층에서 소비심리 정상화에 따른 소비 증가 여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소득 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각 연도 1/4분기 기준)

(단위: 비중 %, 증감 %p)

구분	'19. 1/4	'20. 1/4	'21. 1/4	'22. 1/4	'23. 1/4	'22. 1/4~23. 1/4	'19. 1/4~'23. 1/4
1분위	166.4	157.0	154.5	137.0	153.7	-16.7	12.7
2분위	98.8	87.4	84.7	85.9	84.9	1.0	13.9
3분위	80.8	74.0	74.4	71.9	74.1	-2.2	6.7
4분위	76.9	67.6	65.5	64.8	71.2	-6.4	5.7
5분위	59.8	55.0	56.5	51.4	57.8	-6.4	2.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 시사점

○ 2023년 1/4분기의 소비 회복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러한 심리 회복에 의한 경제 성장 기여는 약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1/4분기에 나타난 소비회복세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소비가 소득의 뒷받침없이 증가한 성격이 컸으며, 이는 전체 경제의 성장을 하락을 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특히, 소득분위별로 볼 때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이 소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계층은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심리를 거의 회복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2022년 1/4분기에 1분위 가계의 경우 타 소득분위에 비해 코로나19 지원금 등 이전 소득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2022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크게 하락한 반면, 2023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기저 효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22년 2/4분기 이후에는 평균소비성향의 상승 여력이 1/4분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은 수출, 투자 등 다른 경제 부분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투자 등의 회복이 필수적이며,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 대중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 반도체, 바이오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에의 투자 등을 통해 전통적인 성장주도 영역이 회복해야만 전체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비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의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소비 회복세를 가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
 - 필수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고용 등 소득 여건이 취약한 가계가 상대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안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